

[2022년 정기기사\(정보처리기사\) 2회 필기시험\(4/24\) 후기](#)

[2022년 정보처리기사 2회 필기\(4/24\) 프로그램 유형 문제풀이](#)

[2022년 정기기사\(정보처리기사\) 2회 실기시험\(7/24\) 후기](#)

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전,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을 보고 왔다.

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후기 글을 써본다.

2023년부터 정보처리기사 시험의 출제기준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.

출제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이 후기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.

나름대로 재미있게 적어봤으니 참고만 하시라.

▶ 후기를 시험 바로 다음 날 쓰는 이유

지난번 작성한 실기시험 후기와 달리 왜 이번에는 빨리 쓰냐고 묻는다면, 이유는 간단하다.

붙은 것 같아서 빨리 쓴다.



<https://media.tenor.com/iyrgl0wcSr0AAAAAd/ohhhh-reaction.gif>

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문제는 총 20문제이다.

한 문제당 5점이고 부분 점수가 존재한다.

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.

실기 문제는 외부 유출이 안 돼서, 수험생들이 복원한 실기 문제를 찾아 내 기억을 되짚어가며 가채점을 해봤다.

1번: 5점 / 2번: 3점 / 3번: 0점 / 4번: 5점 / 5번: 5점

6번: 5점 / 7번: 5점 / 8번: 0점 / 9번: 5점 / 10번: 0점

11번: 5점 / 12번: 5점 / 13번: 5점 / 14번: 5점 / 15번: 0점

16번: 0점 / 17번: 5점 / 18번: 5점 / 19번: 5점 / 20번: 5점

나는 73점으로 예상된다.

▶ 사전 지식

후기 글이 보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,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시험 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지 적어 보려고 한다.

시험에 필요한 지식 위주로만 정리해 보았다.

- 일반고등학교 문과 출신, 대학에서 교육학 전공

본격적으로 연계전공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코딩 조금 아는 정도의 비전공자였다.

- 대학교 3학년부턴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

전공 수업에서 뭔가 도움이 될 법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긴 한데, 부끄럽게도 나는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.

3점을 간신히 넘기는 학점이 증명한다.

그래서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 중 시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알지 못했다.

자바 배운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됐는데,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.

- 동아리 멧쟁이 사자처럼, 42서울 활동

멧쟁이 사자처럼에서는 Python을, 42서울에서는 C를 배운 것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.

근래 3년간(2020-2022) 출제된 수준의 프로그래밍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힐 자신이 있었다.

SQL의 경우 키워드만 몇 개 알고 잘 몰랐다.

프로그래밍 지식을 바탕으로 눈치껏 맞히는 스타일이었다.

정보처리기사 시험 유형의 문제 10문제 풀면 6-7개 정도 맞히지 않을까 생각했다.

▶ 공부 방식

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번에도 공부는 안 했다.

물론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고, 시험 당일 새벽 1시부터 공부를 시작했다.

지난번 떨어진 2회 시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론을 정리하고, 기출과 개념을 찾아서 나올 법하다 싶은 내용만 정리하고 외웠다.

※ 관계 대수

<<R>>		<<S1>>	<<S2>>
A	B	B	B
a1	b1	b1	b1
a1	b2		b2
a1	b3		
a2	b1		
a2	b3		

Handwritten notes and diagrams:

- Green circle around the first column (A) of table R.
- Yellow circle around the first row (B) of table S2.
- Yellow circle around the first column (B) of table S1.
- Green arrow pointing from the first column of R to the first column of S1.
- Handwritten text: $R \div S2 \rightarrow \text{나반!}$
- Handwritten text: A and a next to the person's face.
- Handwritten text: $\frac{A}{a1}$ with a checkmark.

홍달쌤 해설 영상을 캡처해서 그 위에 필기한 사진

해설 강의의 경우 홍달쌤의 영상을 보았다.

전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친한 친구가 홍달쌤의 해설 영상을 추천해 줬는데, 큰 도움이 됐다.

속도는 1.5배속, 프로그래밍처럼 자신 있는 부분은 넘겨가면서 봤다.

[정보처리기사 실기 2022년 2회 - 기출해설특강\(1\) 1~10번 문항](#)

[정보처리기사 실기 2022년 2회 - 기출해설특강\(2\) 11~20번 문항](#)

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몰랐지만,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.
주요 용어를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, 약자라면 무엇의 줄임말인지 전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.
그래서 시험에 나올 법한 용어들을 한글로 앞 글자만 따서 외우고, 이걸 영어로 이끌어내는 연습을 했다.
영어 실력이 좋다면 반대로 해도 괜찮을 듯하다.
시험에 나올 법한 용어는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, 해설 강의나 네이버 수제비 카페([링크](#))에서 추천하는 것 위주로 선정했다.
용어 정리한 것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한다.

프로그래밍 책, 강의에는 한 톨도 안 썼다.
크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양질의 교재와 강의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, 이미 그에 못지않은 무료 자료들이 인터넷에 널려있다고 생각했다.
그런데 나처럼 필기 한 번 미응시하고, 실기 한 번 불합격하는 데 응시로 쓸 바에는 그냥 책이랑 강의 사서 초시에 합격하는 게 더 나을 수도...



<https://wooltari.com/wp-content/uploads/2017/06/46.jpg>

공부 방식에 대해 작성을 마치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다.
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.
시험을 위해 공부한 것보다, 시험과 관계없이 평소에 공부하던 내용이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.
'슬럼독 밀리어네어'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.
시험 전 공부한 것도 많이 나왔고, 적당히 추론해서 찍은 것도 많이 맞았다.
그러니 완전히 나처럼 공부하지는 않았으면 한다.
특히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몇 개를 추려보았다.

2번 관계 대수 문제: 시험 당일 공부했던 기호 출제
5번 서브넷 문제: 42서울 활동 때 netwhat으로 배운 브로드캐스트 + 시험 당일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본 해설 영상 풀이
9번 파이썬 문제: 시험 전 지식인에서 답변하면서 익숙지 않던 lambda와 map()을 사용한 코드 작성법을 공부
11번 형상관리 도구 보기 선택 문제: 평소에 Git을 자주 썼고, V가 Version의 약자인지는 몰랐어도 V가 들어가면 형상관리 도구일 것이라고 생각
14번 보안 용어 보기 선택 문제: 몰랐지만 문제 설명에 쓰인 '구역', '철자', '입력' 등 일부 단어를 근거로 Trust Zone, Typosquatting라고 생각

▶ 시험장 가는 길 + 문제

실수로 내려야 할 역 다음 역에서 내렸다.
반대편 지하철을 타고 가니 늦어져서, 시험장에는 뛰어서 9시 좀 넘어 도착했다.
시험이 시작되는 30분 전까지만 들어가면 괜찮은 듯하다.
그래도 가급적 일찍 도착하는 편이 나을 듯.

여담이지만 뛰면서 살 정말 많이 찼다고 느꼈다.

시험장에는 신분증과 편의점에서 산 볼펜 정도만 챙겨갔다.

틀리면 볼펜으로 두 줄 긋거나 감독관분께 화이트를 빌렸고, 수험번호는 물어보고 썼다.

1번부터 프로그래밍 문제였는데, 좀 놀랐다.

2017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에서 국어 신유형을 접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나 싶다.

이전에는 비교적 단순했고, 반복문도 반복이 적어 일일이 직접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.

그런데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반복문은 반복 횟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.

작성된 코드를 실행 순서대로 따라가기보다는, 전반적인 코드를 보고 무엇을 위한 코드인지를 해석해서 풀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.

아마 출제기준 개편 전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이 아닐까 싶다.

출제 방향 자체는 좋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.

다만 1번과 20번처럼 제대로 코드를 이해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는 괜찮은데, 13번 문제처럼 이해를 하더라도 계산 중 실수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.

7번에서 SQL 테이블 생성 문제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.

SQL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나와서, 지난번 세운 전략대로 SQL 위주로 조금이나마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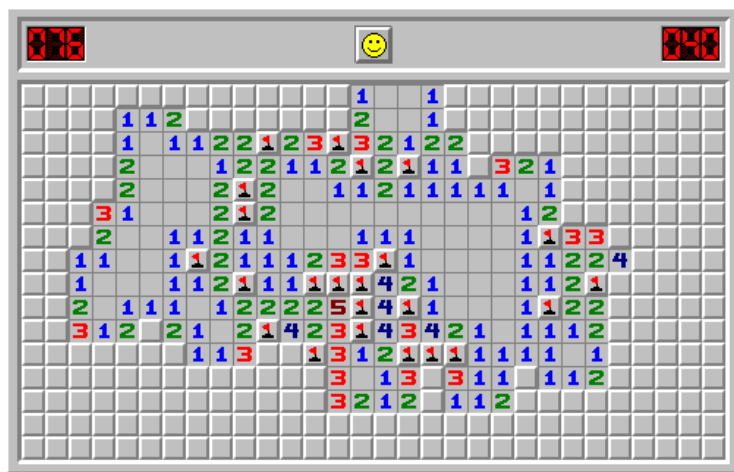
16번 문제를 풀 때는 좀 부끄러웠다.

대학 컴퓨터시스템 강의에서 배운 스케줄링이 나왔는데, 온라인 강의로 들을 때 탄것하느라 제대로 안 들어서 틀렸다.

스케줄링 알고리즘 간 관계, 약자의 길이 이런 건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데 용어 자체는 기억이 안 났다.

문제가 전반적으로 실생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.

1번 문제의 경우 유명 게임인 지리 찾기에 쓰이는 주변 지리의 개수를 출력해 주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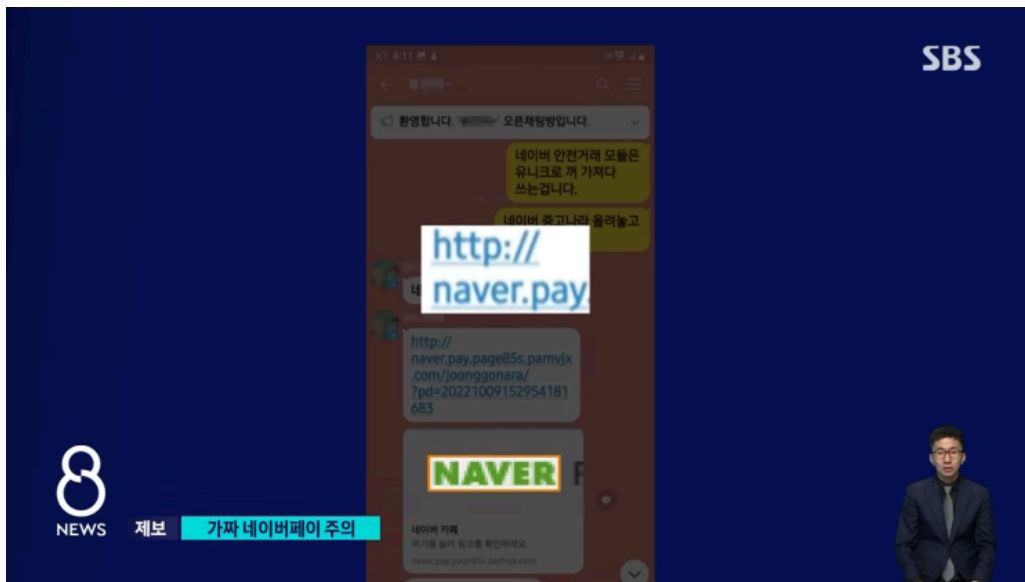


지리 찾기 인게임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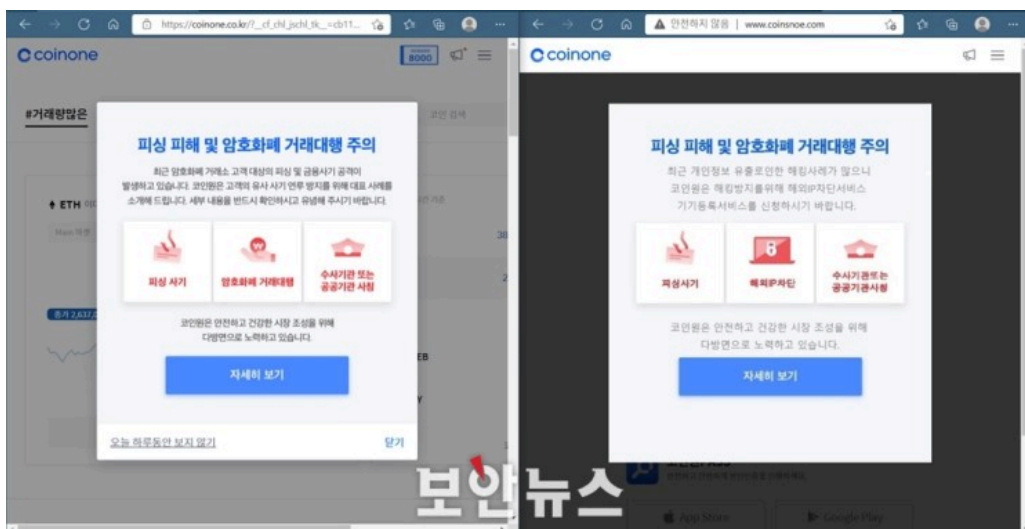
[사진 출처](#)

11번 문제에서 나온 Git의 경우 당장 나부터 시작해서 요즘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형상 관리 툴이다.

14번 문제에서 나온 타이포스쿼팅(Typosquatting)은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온 사이버 공격, 사회공학 기법 중 하나다.



'naver.pay' 완전 속았다...8천만 원 뜯어낸 가짜 사이트 / SBS (2022. 10. 10.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)
[영상 출처](#)



해외 로그인 안내에 타이포 스쿼팅까지... 암호화폐 거래소 '코인원' 사칭 피싱 발견
 (2021-06-22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coinone.co.kr과 가짜 사이트 coinsnoe.com 비교 사진)
[사진 출처](#)

이처럼 실생활과 가까운 내용이 다뤄지는 것도 바람직한 출제 방향이라고 생각했다.

▶ 용어 정리

마지막으로 대단할 것은 없지만, 암기 내용 정리한 것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.

보면 이런 걸로 공부한 사람이 정보처리기사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다.

이딴 게...



정보처리기사?

[사진 생성기 출처](#)

그래도 나와 사전 지식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한다.

2022 정보처리기사 실기 3회 암기노트.txt

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
잠시만 기다려주세요

시험 전 날 SK C&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이 발생해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것 때문에 시험 준비하는 데 타격이 좀 있었다.

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검색해서 찾는데, 정보처리기사 관련 글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대부분이 티스토리 글이라 찾는 게 많이 늦어졌다.

4시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우마무스에 데일리 미션을 못 해서 그거 하겠다고 거의 한 시간 동안 공부 안 하고 블루 스택이랑 스마트폰으로 계속 접속 시도하고 있었다.

데일리 미션이 갱신되는 5시 전에 간신히 접속은 했는데, 미련하게 육성하다가 미션 다 못 땀다.

시험장까지 가는 지하철 시간은 카카오 지하철이 작동을 안 해서 네이버 지도를 썼고, 택시 타려다 카카오 택시가 작동을 안 해서 지하철역까지 뛰어서 간신히 시간을 맞췄다.

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마비만으로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었다.